



△대청에서 회운각으로 내려서다 만난 도솔.



△신선대에서 바라본 공룡릉의 기묘한 자연.



△회운각 옆, 대간마루길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계곡. 가야동으로 흘러든다.

‘산중미인’ 설악은 지금 ‘초록세상’



<40> 설악산 ①

달을 표현하기 위해 구름을 그린다고 했는가. 한계령(917m)도 그랬다. 고갯마루 아래를 안개로 채웠으므로 설악의 봉우리들을 하늘 저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고 있었다.

그 이름만으로도 수운주가 고개를 뚫는 고개, 한계령(漢界嶺), 인제 원통을 지나 한계리 어둠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니, 하늘벽과 장수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염천을 무색케 한다. 높이부터가 웅만한 산을 앞지르는데다, 동해를 지켜두고 설악산과 점봉산을 양 옆구리에 끼고 있으니, 삼백이 한꺼번에 달려와도 기가 꺾이지 않을 수 없겠다.

이 땅의 고개 중 으뜸으로 아름다운 곳을 꼽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령을 든다. 봄의 청량함과 여름의 짙푸름, 낮을 맞아갈 듯한 가을 단풍과 겨울의 강건미로 철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거기에 더해 날씨가 좋으면 동해 푸른 물에 눈을 적실 수 있으니 그 명성은 결코 호들갑이 아니다.

서쪽으로 강원도 인제군 북면과 동쪽으로 양양군 서면의 경계를 이루는 한계령 마루에서 설악을 오른다.

한계령 휴게소 뒤 '설악루'로 오르는 시멘트 계단으로 설악산에 등다는 사실이 그리 유쾌하지는 않다. 이름하여 108계단인데, 번뇌를 털어내는 계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번뇌 떨어리인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점봉산의 가파른 동해를 조망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에 자리잡은 설악루는 한국 현대사가 만든 슬픈 일편의 한 부분을 이루는 김재규가 이 지역에서 군단장을 할 때 지은 것이라 한다. 큰 돌에 새겨진 그의 이름은 정으로 쏘아져 세인의 눈으로부터 비껴나 있지만 시속의 부박함만큼은 더 선명히 드러내 보인다. 하지만 설악산은 경총 키클을 울리며 번잡한 상념을 털어내 준다.

지금 설악산은 그늘마저도 초록이다. 신갈나무, 까치박달, 거제수, 사스레나무 등 다채로운 나무들

자연자원 풍부한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보존지구 지정

비선대·천불동 관광객 몰려
내설악 강건한 산악미 극치

소청아래 가장높은절 봉정암
용아장성·천화대 암릉 기묘

이 짙푸른 기운을 풀어내기 때문이다. 특히 단풍나무는 초록의 절정을 보여준다. 곱게 뜯는 건 푸른 날들도 고운가 보다.

설악산의 풍부한 자연자원은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1965년에 천연기념물 165호로 지정되었고, 1970년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1982년에는 유네스코가 한국 유일의 생물권 보전지구로 지정하기도 했다.

설악산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뉜다. 이번 산행의 기점인 한계령 남쪽 정봉산 일대를 남설악, 백두대간의 등성마루이자 설악산의 주령인, 한계령-서북능선(공청, 중청, 대청)-공룡능선-저항령-황홀봉-미시령을 기준으로 동쪽은 외설악 서쪽은 내설악이다. 신홍사를 비롯 비선대, 권금성, 천불동계곡이 외설악의 품에 안겨 있다. 설악산이 쉽게 걸을 주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다. 이와 달리 내설악은 가야동계곡이나 수렴동계곡, 용아장성 등 계곡과 수림 그리고 형세의 조화가 이루



△중청을 지나대청을 향하는 대간길.

어내는 산악미의 극치를 보여 준다.

흔히 산중미인으로 불리는 설악산은 저 대간의 남쪽 들머리에 자리잡은 지리산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화려함으로 보자면 지리산은 시골 새악시에 가깝고, 품의 넉넉함으로 보자면 설악산은 지나치게 강박하다. 그러나 그건 똑같이 존중되어야 할 '다들'이지 결코 우열의 차원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다. 특히 설악산은 해방 후 북한 땅이었다가 6·25전쟁 후 남한 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불과 반 세기 전까지도 많은 사람이 찾은 산은 아니었다. 금강산의 그 높에 가려 뒤늦게 진가가 밝혀진 측면도 있지만 접근이 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른 명산에 비해 선인들의 탐승기나 유산기가 드문 것도 그러한 연유에 서일 것이다.

간단히 설악산을 지나는 대간의 등성마루를 더듬어 보자. 한계령에서 서북능선을 만나기까지는 두어

시간을 계속해 올라야 한다. 서북릉에서부터는 귀때 기청봉을 뒤로하고 동진, 천천히 걸어도 반나절이면 갈증을 지나 중청에 이를 수 있다. 갈증을 지나면서는 시야가 넓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왼쪽으로 용의 어금니를 닮았다는 용아장성의 기묘한 암봉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은 암자인 봉정암이 모습을 드러낸다. 중청 대피소에서 조망도 아주 빼어나다. 그 모습이 공룡과 흡사하다는 설악산의 대표적 암릉인 공룡능선, 바위 봉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꼭지점을 이루고 있는 천화대, 동해를 향해 내달리는 화재봉 그리고 대청봉(1708m), '매우 높고 가파르다. 8월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여 여름이 되어야 녹는 까닭으로 설악(雪岳)이라 이름 지었다'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이름 유래가 이 봉우리에서 비롯됨을 단박에 알겠다. 중청에서 바라본 대청은 원만하면서도 우뚝하다.

설악산 특유의 날카로움이 없는 건 아니다. 경사면에 군더더기라고는 없어서 날카로운 느낌은 금세 당박함 뒤로 숨는다.

대청에서는 회운각 대피소까지 줄곧 허리를 낮춘다. 내리막 오르막은, 고요가 지나쳐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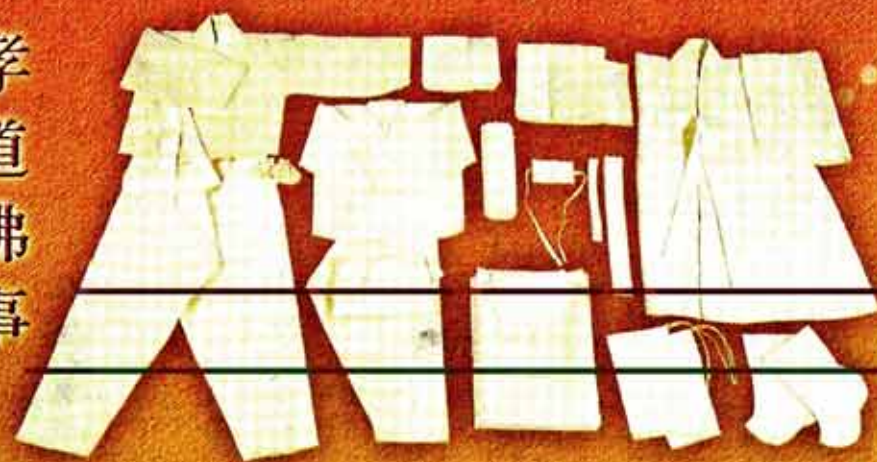
회운각에서 신선대에 올라서면서부터는 공룡의 진동을 타게 된다. 공룡릉을 걷게 되는 것이다. 공룡의 등허리가 어찌 호락호락할까만, 발바닥을 찌릿하게 하는 유쾌한 긴장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설악산의 자태가 산행의 즐거움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공룡릉을 벗어나면 마동령, 공룡의 등에서 내려 말 등에 올라타는 셈이다. 서쪽으로 내려서면 내설악 백담계곡, 오른쪽으로 내려서면 외설악의 비선대.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석(사진작가)

불교 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삼베명품전

孝道佛事



1,400,000원

극락왕생복 특별할인가 (남·여) 각 1,120,000원
스님들의 수의도 짓고 있습니다.



30,000원

삼베양말 특별할인가 (남·여) 각 1set(6족) 20,000원



20,000원

삼베목수건 특별할인가 1개 10,000원 / 크기 24cm(너비)x 262cm(길이)

수상홍수와 방산기술은 일반인의 삶에, 무조건이나 피염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삼베목수건은 식물성섬유와 동물성섬유의 장점을 살려 제작해 삼베목수건의 사리사각한 느낌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불교텔레비전주식회사
서울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대표전화: 02-3270-3300 팩스: 02-3270-3498



• 불교TV 후원의 전화: ARS(02)700-1032(한 통화액 2,000원의 후원보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TV 시청 방법: 전국 각 지역의 종합유선방송(SO)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주문전화(불교TV사업부)
02-3270-3366~7